

익산형 마스크 수급 안정

기증된 2만7000여장 추가 보급... 공적 마스크 재고 충분 시 흡피에 현황 실시간 안내, 휴일지킴이 약국도 확대

익산시가 마련한 '익산형 마스크 공급대책'이 실효를 거두면서 시민들이 어렵지 않게 마스크를 공급받는 등 안정감을 찾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마스크 추가 공급과 휴일 공적 마스크 판매처를 확대해 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마스크 사각지대를 빠르게 축소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 기업들이 기증한 마스크 7천여 장을 취약계층에게 우선 배부한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면 마스크 5천장을 기탁했으며 약국이 부족해 공적 마스크 구입이 원활하지 못한 면 지역 주민들에게 배부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기탁한 보건용 마스크 2천장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과 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0일 자매도시인 중국 진강시에서 보내온 마스크 2만장까지 외국인근로자 등에 추가 보급되면 마스크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시민들은 약국과 농협, 우체국 등을 통해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으며 19일 기준 익산지역 마스크 재고 현황은 2만여장으로 구입에 큰 어려움은 없는 상태이다.

익산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공적 마스크 판매처와 재고 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본격화했다.

공적 마스크 공공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마스크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지도를 통해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읍면동 167곳 약국의 재고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장시간 줄을 서서 대기하는 어려움과 여러 판매처를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휴일에도 안심하고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휴일지킴이 약국을 기존 11곳에서 43곳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약국들은 공적 마스크 소진 시까지 운영되며 운영 시간이 변경될 수 있어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이 같은 익산형 마스크 공급대책은 시민들의 마스크 구입으로 인한 피로감을 덜고 마스크 수급의 안정감을 찾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해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申진강시, 익산시에 마스크 2만장 지원

익산시와 23년간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진강시에서 익산 시민들을 위해 마스크 2만장을 기부(사진)함에 따라 국경을 넘어선 나눔으로 지역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한국의 소식을 듣고 진강시 측에서 먼저 마스크 지원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정현을 익산시장이 감사 서한문으로 답하면서 지원이 이루어졌다. 지난 20일 익산시

가 전달 받은 마스크 상자에는 肝胆每相照, 冰炭不相容 (간담매상조 빙호영한월 : 서로 모든 것을 다 내어보이는 깊은 사람이 마치 옥주전자에 비친 차가운 달빛처럼 투명하구나) 라는 응원 메시지가 적혀 훈훈함을 더했다.

장병비 진강시장은 "진강시도 연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었으나 현재는 많이 진정된 상황이다"며 "함께 노력하면 필연코 이번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리라 믿고 익산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으며, 이에 정현을 익산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큰 결정을 해주신 장병비 진강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양국 모두 코로나19의 위협에서 벗어나 더욱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LH 청년창업가 주거안정 '맞손'

LH 임대주택 보증금·월 임대료·시설물 관리 등 지원

군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지역 내 청년창업가들의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권창호)와 손잡고 군산지역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한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군산시의 혁신적인 청년 창업가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주거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해 창업정착률을 높이고, 창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LH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입주자 선정기준 계획수립 및 임대대상 청년창업가를 선정하고, LH는 임대주택 공급·임대계약·시설물 관리 등 주택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입주가능 주택은 군산시 관내 LH 소유 임대원룸(48호)과 임대아파트(322호)로 총 370호이며, 지원 자격은 만19세 ~ 39세의 군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입주계약 후 1개월내 전입 가능한 청년 중 자신만의 창업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의 기창업자다.

지난 2월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신설

한 군산시는 군산시 청년들을 개소해 창업지원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창업 희망기움사업, 수재창업플랫폼 운영 등 창업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주거지원사업으로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군산시와 LH는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영시장 인근 한화부지에 총사업비 227억원으로 '군산금암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해 오는 7월 중 착공, 오는 2022년 12월 중 15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준공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는 지난 20일 시청에서 ㈜이너엔 김운수 이사, 정현을 익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 투자를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너엔, 익산에 220억원 투자

화장품·기능성식품 제조... 35명 고용 창출 기대감

익산시는 지난 20일 시청에서 ㈜이너엔 김운수 이사, 정현을 익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 투자를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이너엔이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 투자를 약속하며 정현을 익산시장과 ㈜이너엔 김운수 이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너엔은 금번 투자협약에 따라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 28,143㎡ 부지에 220억원을 투자하여 35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으로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산단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이너엔은 친환경 화장품과 피부미용 및 할색순환 개선 등에 효능이 있는 기능성 식품 생산시설도 갖춘 계획으로 "그간 다져 놓은 유통채널을 통해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 달성을 내다보고 있으며 2025년까지는 연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현을 시장은 이날 "코로나 19로 국내외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 투자를 결정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로 상생발전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신영시장, 경제위기극복 상인회비 100% 감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군산 신영시장 상인회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월별 상인회비를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100% 감면을 하기로 결정했다.

평소 상인회는 68개 점포를 대상으로 월 140만원 정도의 회비를 걷고 있으며, 이번 계기를 통해 상인회비를 감면할 경우 3개월간 감면액은 총 420만원 정도로 점포당 월 20,000원 정도 부담을 덜어 주는 셈이다.

수십 년간 신영시장에서 장사를 이어온 박모씨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평소보다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하였다"며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상인회에서 앞장서 상인회비를 100% 감면하여 다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에서는 이번 미담 사례를 다른 시장 역시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점에 훈훈한 전 통시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신영시장 송기섭 상인회장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고 말하며 "이번 감면이 상인들의 상권회복에 대한 희망과 질병 재난 극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예전처럼 시끌벅적 사람 냄새로 가득한 신영시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추경 긴급지원

군산시가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인 코로나19 피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시민들과 지역상권 피해에 따른 긴급지원을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방역 강화를 위한 646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와 공공요금지원, 특별보증지원, 취약계층 방역물품지원, 임금규약차 구입 등에 134억 원을 투입하고,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긴급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됐다"며 "반영된 추경예산이 조기에 신속한 투자가 되도록하여 긴급 관성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마스크 무상 공급

군산시는 긴급 확보한 공적마스크를 세 자녀 가구 대상 다자녀 가구에 추가로 확대공급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노인과 장애인 등 재단 취약계층과 다중이용시설, 돌봄시설, 산업현장 등에 마스크를 지원했으며 감염에 취약한 입산부 1,142명(등록 입산부)을 대상으로 5,700매를 우선적으로 배부했다.

또한 지난 12일 관내 주민등록 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20세 이하 자녀가 포함된 네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을 위해 공적마스크 4,500여매를 각 읍면동에 공급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세 자녀를 둔 가정에게도 추가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현재 기준 군산시 세 자녀 가구수는 3,674가구로 공적 마스크를 한 가구당 5매씩 지급한다. 세 자녀 가구 여부 확인 후 마스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